

01 교회소식

전 세계 만민 성도 기쁨과 감사의 예배

우리 교회와 늘 함께하시며 친히 인도해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지난 3월 18일, 전국 및 전 세계 만민 성도가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특별한 예배를 드렸다.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구하며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가능하다.

03 기획특집_가나안정복사 8

믿음으로 얻는 가나안 땅의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정복사를 한마디로 축약하면 믿음과 순종 그리고 헌신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함으로 행군할 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04 화보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우리 교회 및 국내 지교회 교역자와 직원 약 820명이 천국을 연상케 하는 1일 위로회를 가졌다.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된 은혜의 현장을 사진으로 만나 본다.

만민뉴스

제525호 2012년 3월 25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나아가자 세계를 향해, 영혼을 향해

Lyrics

앞으로

Forward, Let Us Go Forth

성령의 검 가진 자
하나님 은혜 받은 자
목자의 권능 체험한 자

우리 마음 다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자

모두 일어나 모두 일어나
세계를 향해 나아가자
목자와 함께 나아가자

나아가자 나아가자
나아가자 나아가자
세계를 향해

나아가자 나아가자
나아가자 나아가자
영혼을 향해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Copyright©2009.2.4 Administered by Manmin Central Church.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GCN 방송, '2012 필리핀 국제 케이블 TV 박람회' 참가

GCN 방송(www.gcntv.org)이 지난 3월 8일과 9일 이틀간 필리핀 마닐라 호텔에서 열린 '2012 필리핀 국제 케이블 TV 박람회'에 참가했다. GCN 방송은 HD로 제작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권능 사역과 방송 선교 사역, 영문판 신앙서적을 홍보했다.

GCN 방송 부스에는 다수의 케

이블 방송사들이 방문, 15개 방송사와 GCN 방송 프로그램 송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필리핀 내 총 117개 협력 방송사를 보유하게 됐다. 또한 GCN 방송을 시청함으로써 치료와 축복받은 사람들이 부스를 방문해 간증을 전했다.

한편, 필리핀 주요 일간지 '마닐라 불리틴' 비즈니스 섹션 1면에 '2012 필리핀 국제 케이블 TV 박람회'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에 GCN 방송 이정호 사장(앞줄 맨 왼쪽)이 함께한 사진이 실리기도 했다.



이정호 사장은 콘퍼런스 둘째날 전체 회의 석상에서 GCN 방송을 홍보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Toyota Says Supportive Gov't Policies Key To Assembly, Parts Investments
필리핀 주요 일간지 '마닐라 불리틴' 비즈니스 섹션 1면

“하나님, 주님, 성령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3월 18일 주일예배는 특별했다. 1982년 교회 개척 후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항상 함께하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참 뜻과 섭리를 선포하는 복된 제단으로 이끌어 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졌다.

주일 대예배와 저녁예배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총만케 하리라'(학 25~9)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맺은 열매도 대단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 제단을 통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더욱 깨어 신앙생활을 하며, 오늘을 기점으로 가나안 시대의 주역들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이루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저녁예배 시에는 예능위원회 소속 할렐루야선교단, 파워워십팀, 천상의 무용팀의 공연 후, 전 성도가 '하나님의 연회', '아리랑', 'JESUS' 등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더불어 GCN 방송을 통해 전국 및 전 세계 만민 성도가 함께했다.

신간

당회장 이재록 목사 대표 설교집 『십자가의 도』
체코어, 헝가리어, 덴마크어, 노르웨이어 판 발간

29개 언어 발간

urimbooks.com
문의 02-837-7632



당회장 이재록 목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

하나님의 선하신 뜻

대로 공의에 맞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 10:13)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라고 약속하셨지요. 이처럼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지만,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구원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깨우쳐 입술로 “믿습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지 않고 마음에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지요 (롬 10:9-10). 그런 사람은 야고보서 2:22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8:17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지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만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모든 행함이 진실하며 선한 향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 자녀들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아와 자신의 하인을 고쳐 주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대제국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자기의 하인을 위해 예수님 앞에 나아와 구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선하고 사랑이 많은지 짐작할 수 있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삽나이까”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하시며 “네 믿은 대로 될지 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시로 하인이 나왔습니다.

그는 큰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비함과 하인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까지 있었으니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 드리면 모든 간구와 기도에도 응답하시며 질병뿐 아니라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3. 선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따라 선과 악을 구분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양심은 각 사람의 자라온 환경이나 배움에 따라 다르게 형성됩니다. 선한 부모 밑에서 자랐느냐, 악한 부모 밑에서 자랐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어떤 스승을 통해 배웠느냐에 따라 가치관이 다르게 형성되지요. 때문에 각 사람마다 선의 기준이 달라 선한 것을 악하다 할 수 있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2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란 바로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생각 그 자체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6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즉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좇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선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와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부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하지 않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진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선의 기준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세상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자신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외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던 다윗 왕이 자기 부하의 아내인 밋세바와 동침하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부하를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며 책망하시지요(삼하 12:9-10).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죄를 범한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이 됨을 알려 주고 있지요. 따라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선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고 불같이 기도해 비진리를 벗어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행함으로 크신 축복과 응답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기업에서는 한 사람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 결정합니다. 회사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일꾼으로 세우시며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무에게나 구원을 베푸시고 응답으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기준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어떤 사람에게 구원과 응답의 축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1. 사랑과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갈라디아서 6:7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랑이시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풍성히 받는 반면, 어떤 사람은 시험 환난 속에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차별하셔서 그럴까요? 아니지요. 축복받는 사람은 진리인 하나님 말씀

2. 선 가운데 행할 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축복을 주시지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일가친척은 물론 친구들까지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고 구제하며 선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

교회 오시는 길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6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 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헌신으로 하나님 권능을 체험하며 40년 광야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여호수아와 함께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8회에 걸쳐 이재록 목사의 저서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중심으로 가나안정복사를 살펴보았다. 이로써 약속을 성취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침노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 바란다.

믿음과 순종, 그리고 헌신의 역사

◆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성취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 이스라엘 각 지파는 연합해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대부분 정복한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땅을 나누고 각 지파의 기업을 분배한다(수 13~21장).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창 15:13~18)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구체화된 것이다.

여호수아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모세가 준 소유지 곧 기업으로 받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수 22장). 이들은 가족과 가족, 재물은 요단 동편에 남겨 둔 채 요단강을 건너와 약속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용감히 싸웠기 때문이다.

◆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분배는 마무리됐다. 곧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얻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와 토지를 기업으로 받지 않은 레위 지파를 제외한 아홉 지파 반이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 자신들의 믿음대로 기업을 침노해 나갔다.

◆ 여호수아의 유언과 세겜에서 가진 결단의 시간

어느덧 노년에 접어든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두령들,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 유언을 남긴다.

“...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같이 하라”(수 23:6~8)

◆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해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어떤 강한 적이라도 물리치게 하시며 모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다. 반면에 믿음이 퇴보하고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려 이방인들을 가까이하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될 것도 다시 한 번 알려 주신다.

여호수아는 전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발 산과 그리심 산 사이에 위치한 세겜에 백성을 모으고 장엄한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누구보다도 앞서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확고한 선언 앞에 백성 역시 망설이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며 거듭 맹세한다.

여호수아는 거듭 언약을 확인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켜야 할 계명들을 다시 한 번 가르친다. 그리고는 큰 돌을 취해 증거를 세우고 각자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했다. 이 일 후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삶을 조용히 마감한다(수 24장).

◆ 가나안 정복사는 우리 신앙의 여정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정복사를 한마디로 축약하면 믿음과 순종 그리고 헌신의 역사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예비하신 가나안 땅은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고백하며 행군할 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널 때에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강에 발을 디디라 하셨고, 여기고 성 역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무너졌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생명 다한 충성으로 온전

히 순종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후 각 지파의 믿음대로 분배받은 기업을 차지하는 과정에는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

◆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살펴보면 성결 운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심으로 죄와 악을 버릴 것을 상징적으로 깨우쳐 주셨으며,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도 백성을 성결케 하셨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길목에 있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셨고, 여기고 전투를 목전에 두고도 할례를 명하셨다.

그 이유는 성결한 자녀를 얻는 것이 하나님 뜻인 동시에 우리가 성결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마 5:48, 빌전 1:15~16).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성결은 매우 중요하다.

가나안정복사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해 가는 과정과 같다. 설령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해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견고하며 흔들림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변함없이 믿고 담대히 행할 때 열매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주 안에서 나타내지거나 낙심하는 것은 금물이다.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목표로 삼았다면 때로 아무리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어려움이 닥쳐도 주저앉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믿음과 순종, 헌신으로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더욱 힘차게 행군하기를 바란다.

March 3

www.gcntv.org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시청자와 소통하는 GCN방송이 만들어집니다. GCN방송은 시청자 여러분을 향해 늘 열려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위성, 인터넷, 인터넷TV 방송 및 A/S 문의 1577-2073

주요 프로그램

- 이재록 목사의 [사랑장 15,16,17,18,19]
- 이재록 목사의 [십자가의도 16,17,18,19,20]
- 이재록 목사의 [지옥 12,13,14,15,16]
- 신동초 목사의 [출입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 GCN특선영화 (심계1부)

자세한 관심안내는 GCN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연상케 하는 축복잔치, 행복 기쁨 소망 넘쳐

어느덧 교회를 개척한 지 30년의 세월이 흘러 전 세계 1만 여 지·협력교회와 함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지난 3월 19일(월)에는 우리 교회 및 국내 지교회 교역자와 직원 약 820명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천국을 연상케 하는 1일 위로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하나님의 진한 사랑과 위로를 느끼며,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더불어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 섭리를 되새기며 하나님 나라와 전 세계 영혼 구원을 위한 일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AM 10:00

충만한 준비찬양을 시작으로 기사와 표적, 하나님 권능으로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창대히 이뤄 온 우리 교회의 역사를 담은 영상물 '믿음으로 걸어온 길' 상영이 있었다. 이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인사말이 있었다.



~ Happy Lunch Time ~

◀ 63빌딩 상공에 뜬 무지개 (오후 1시 5분 25초)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천상의 무용팀, 미라클, 권능팀, 할렐루아선교단, 파워워십팀, 크리스탈싱어즈의 화려한 공연으로 감동을 더했다.



이어 이수진 목사와 한주경 찬양선교사, 김지애, 송지형, 신푸름 자매의 찬양 인도로 참석자 모두 당회장 이재록 목사와 함께 '앞으로', 'JESUS' 등을 온몸으로 찬양하며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PM 5:00

사진 최임수, 유송열, 김일두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자녀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명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D/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들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산만민교회 경기도 안산시 공도읍 조탈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남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재로 409-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637, 2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성곡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4201 2073
- 인천지성전 서울특별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D/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5526-574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